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평가와 유용성

-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

오정학* · 고동완** · 김유일*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 제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An Evaluation for Regional Identity of Urban Parks and It's Utility - focused on the new towns in the Capital Region -

Oh, Jeong-Hak* Ko, Dong-Wan** Kim, Yoo-III*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 Dept. of Architec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ecent expansion of urban parks has been partly successful in terms of providing urban outdoor recreation spaces. Unfortunately we paid very little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providing regional identity to urban parks until recently. Thu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s of Korea is to investigate ways to improve regional identity of urban parks.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how well the current urban parks have realized their own regional identity.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concept of 'identity', the identity items were created, while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by using such variables as in urban park identity, park satisfaction, belongingness to the reg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order to test the model, the causations were analyzed. Meanwhile, the scales to evaluating identity were reviewed by means of the unstructured group interview, and were finally determined as 10 items; culture, uniqueness, symbolic, historic nature, homogeneity, harmony, difference, public benefit, nativeness and traditionality.

Data from three new towns in the capital region-Bundang, Ilsan and Sanbon-were collected, and their central parks were referred to a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were proces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It was found through this survey that subjects 'sentiments regarding the sample towns' regional identity differed slightly. Residents of Bundang felt the strongest amount of regional identity, followed by those of Ilsan and Sanbon.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scale on regional identity is 'park satisfaction', followed by 'belongingness to the reg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interpret the causations in a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way than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it was proven that the regional identity affects 'belongingness to region' through the intermediate variable 'park satisfaction', while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through the intermediate variables 'park satisfaction' and 'belongingness to regi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 regional identity of a park does not directly affect 'belongingness to region' or 'residential satisfaction', it has indirect effects on them through intermediate variables.

Key Words : Identity, park satisfaction, belongingness, residential satisfaction

I. 서론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한국의 도시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긴 역사를 이어온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국토 조건상으로는 중위도상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과 여러 개의 산맥으로 인한 지역적 분절 등을 그 구체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위도라는 입지적 특성은 좁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을 갖게 하였고, 산맥으로 인한 지역적 분절은 오히려 각 지역마다 고유한 향토문화를 이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주거환경과 생활문화, 산업의 발생을 낳게 한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는 자생적인 근대화에 실패하였고, 그에 이은 일제 강점기, 한국동란, 1970년대를 전후한 압축성장기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서구 중심의 물량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공원의 조성 역시 부족한 여가공간의 보급을 위한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유사한 기호적 패턴아래 보편성이라는 가치는 획득하였으나 지역적 정체성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성은 조경분야에서도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도시 정체성 회복이라는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경학회의 학술세미나(황기원, 1996; 김영대, 1996; 임승빈, 1996) 등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도시환경의 질적인 문제를 개선기 위해서는 정체성(identity)개념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현재의 도시공원이 해당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탐색적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의 평가에서 지역적 정체성 개념 적용의 유용성(utility)을 진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II. 연구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1960년을 전후하여 Lynch(1960)와 Gibberd(1967)가 그들의 저서에서 부분적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을 전후로 하여 Proshansky(1983)를 비롯한 환경심리학자와 Relph(1976) 등의 인문지리학자에 의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체성의 인지과정 등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정체성을 촉발하고 형성하는 것은 자의식에 있으며 자의식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체성은 '이미지(image)'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것이다(유병림과 황기원, 1992).

국내에서의 연구는 환경지각 및 장소성과 관련하여 정체성의 주요 요소들을 거론하면서부터이다(이규복, 1980). 그 후 정체성의 개념구조를 정체성의 내용, 기제와 매체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도시내 거리를 대상으로 한 모형연구를 통해 실제적 적용기법을 제시하므로써 종합적이고도 기본적인 이론의 토대구축이 시작되었다(유병림과 황기원, 1992). 또한 정체성과 관련된

도시경관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도시의 경관정체성을 환경계획학적 시각에서의 재해석이 행해졌고(김한배, 1997), 주거환경분야에서는 개인의 자아가 물리적 환경속에 표출되는 매카니즘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졌다(주종원과 하재명, 1986; 하재명과 박찬성, 1992).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나 조사 연구는 그 직접적 평가대상을 주택 및 근린주구로 설정한 도시 주거환경분야에서부터 비롯되었다(주종원과 하재명, 1988; 하재명, 1989; 이현미, 1991).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정체성의 평가(김동찬, 1995; 심윤경, 1996)는 대체로 전통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원시설물을 직접적 묘사, 형태의 제현, 재해석 등으로 분류하는 정도이다.

이상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조사 연구가 평가 대상으로서는 물리적 요소에, 지각과정 중에서는 시지각에 국한되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의 성격 또한 이용자가 정체성을 지각하는 요소의 추출 및 부분적인 시설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체성과 전체적인 공원 만족도, 주거 만족도 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인과적 관련성을 밝히는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시공원 설계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식하여 활용한 요소는 주로 전통사상 측면, 전통적 형태 측면, 전통적 공간기능 측면 등에서 추출되어왔다(김동찬, 1994). 그러나 도시 공원에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전통성'이라는 단일의 주제로만 파악하여, 전통적인 시설물만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은 부분적인 해석에 그치는 감이 있다. 오히려 지역적 정체성은 조경양식적 측면에서 볼 때, 형태, 색상, 구조 등의 면에서 다원성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상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더니즘 조경의 확립적 보편성을 피하고, 삭막한 도시 환경에 의한 개인의 지역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유발될 수 있는 정신적 상실감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그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연관된 환경을 창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성'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과정으로서는 먼저 정확한 장소적

특성을 파악하여 계획과정에서 이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소적 특성의 고려는 주변 환경의 이미지, 공간 구조, 자연 특성의 반영 등에 의해 실천될 수 있으며(Relph, 1976), 또한 장소적 특성 반영은 지역적 배경(context)의 고려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이경훈과 김진균, 1993). 그러나 배경의 해석은 자칫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왜곡된 해석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적 특정문화의 내재적 가치들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과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적 배경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요소의 개발이 요구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변하기 전의 본래의 참된 형태'를 말하는데(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92), 영어 identity를 번역한 말로서 라틴어의 identitas, identicus에서 유래하였으며 idem, 즉 '동일하다'란 뜻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개념은 원래 자아(self) 개념의 일부로서 처음 미드(Mead, 1934)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하재명, 1989:5), Erickson(1950)이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논리학이나 철학의 영역을 넘어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건축학 등과 같은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정체성은 물리적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심리적인 요인이 정체성의 인지 깊이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하재명과 박찬성, 1992). 이것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정체성은 '이미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정체성은 결국 어떤 사물이나 존재의 실체이기 보다는 그 실체에 대한 심상, 즉 '이미지'라는 추론이 도출된다(유병림과 황기원, 1992). 즉 공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매체는 공원 자체의 속성 예를 들어, 이용시설보다는 그 공원에 대한 '이미지'가 공원 정체성의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정체성 구현 여부의 평가

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접근방법에 근거한 ‘이미지’의 분석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이미지가 공원만족도 또는 공원이용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김한도, 1994). 따라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공원에 대한 심상 즉 ‘이미지’로서 이용자의 심리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원이용의 종합적 반응인 공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성립되는데, 이러한 공통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공통된 역사를 상기시키거나 확인시켜주는 물적 환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Hull, 1994:118)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도시 공원 역시 이러한 물적 환경의 하나로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도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주거환경평가에서 주거만족도는 개

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물리적 주거환경 속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웃과의 관계, 유대감 같은 사회적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행복감, 이웃관계, 소속감 등의 사회·심리학적 요소가 높게 나타나며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김유일, 1988; 김봉원, 1995; Kim, 1997).

Figure 1은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이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연구 가설을 포괄하는 연구모형이다. 연구모형은 공원만족도와 지역적 소속감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포함한 것으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공원만족도와 지역적 소속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설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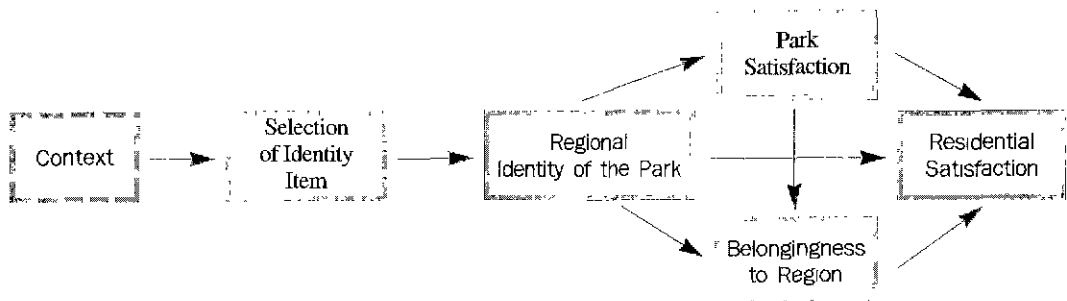


Figure 1. The hypothesized causal model of this study

2. 정체성 측정항목 설정

“정체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는 동일성(sameness)이고 또 하나는 개별성(individuality, oneness)으로 풀이된다. 이 때 앞의 것은 ‘~와 같은 정체성(identity with)’이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이고, 뒤의 것은 ‘~의 정체성(identity of)’라는 뜻을 가진 정체성으로 구분된다”(유병림과 황기원, 1992: 18). 즉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놓고 얘기할 때 동일성은 그 공간이 속해있는 해당 지역과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속적 등질성을 의미하는 반면, 개별성은 그 지역 외의 타 지역과 비교되는 독립적

인 속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또한 동일성은 공간의 내부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성은 그 비교대상이 외부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들이 제각기 그 기능을 상보적으로 잘 발휘할 때 공간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정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체형이나 문화적 바탕, 환경적 특성을 계승하고,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립성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역적 정체성으로 정의한다. 즉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역사, 문화, 향토, 전통, 자연환경과 같은 지역적 배경이 그 바탕이 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동일성과 개별성이라는 정체성 개념의 두 가지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면은 여전히 추상적 수준으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측정,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측정항목 개발기법인 비구조화된 집단면접 (unstructured group interview) 후 소집단 심층면접 (표적집단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에 의한 스크리닝(screening) 방법을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비구조화된 집단면접법은 일반적인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와 문헌 및 기존의 연구들에서 ‘정체성’을 설명하는 어휘 또는 서술적 묘사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이 때, 서술적 묘사는 의미를 가장 잘 함축하는 용어로 재표현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추출된 ‘정체성’을 설명하는 용어는 다음의 20개 어휘이다; ‘고유성’ (uniqueness; 하재명, 1989), ‘공익성’ (public benefit; Wamsly, 1988), ‘공통성’ (common; Hull, 1994), ‘개별성’ (individuality; Lynch, 1981), ‘단일성’ (oneness; Lynch 1981), ‘독자성’ (independence; 하재명, 1989), ‘동질성’ (homogeneity; Relph, 1976), ‘문화성’ (culture; Bonta, 1979), ‘식별성’ (discrimination; 김한배, 1997), ‘상징성’ (symbolic; Hull, 1994), ‘역사성’ (historic nature; Proshansky, 1983), ‘영역성’ (territoriality; 하재명, 1989), ‘수월성’ (excellency; 유병림과 황기원, 1992), ‘조화성’ (harmony; Goldsteen, 1993), ‘지속성’ (enduring; Proshansky, 1983), ‘전통성’ (traditionality; Gordon, 1961), ‘차별성’ (difference; Gibberd, 1967), ‘친밀성’ (familiarity; Lynch, 1981), ‘특이성’ (distinction; Goldsteen, 1993), ‘향토성’ (nativeness; 하재명, 1989).

두 번째 단계로 소집단 심층면접은 조경학 전공 전문가 집단(대학원생) 10명의 그룹 토의에 의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어휘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적용하였다. 이 스크리닝 과정은 앞에서 추출된 20개의 정체성 관련 어휘를 ‘도시공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어휘로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구체성-추상성 수준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어휘의 적절성’ 점검은 ‘예/아니오’로 판단하게 하였고, ‘구체성-추상성’의 점검은 해당 어휘가 지니는 의미를 포괄성과 표상의 난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집단 10명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후 그룹 토의 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어휘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공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부합도가 높다고 토의된 10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어휘는 ‘문화성’, ‘고유성’, ‘상징성’, ‘역사성’, ‘동질성’, ‘조화성’, ‘차별성’, ‘공익성’, ‘향토성’, ‘전통성’이다. 이들 10개 어휘는 설문 조사후 변이계수(C.V.) 및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거쳐 ‘정체성’이라는 잠재개념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를 사전 분석한 후 본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1990년대 이후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분당, 일산, 산본 신도시 지역 및 대표적 공원을 선정하였다. 이들 신도

Table 1. Summary of three surveyed sites

Site	Bundang	Ilsan	Sanbon
Loc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Area	470,560㎡	644,030㎡	40,020㎡
Facilities	전통연못, 잔디광장, 사당, 고가옥, 체력단련시설, ping, 산책로 등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전망대, 잔디밭, 전통정원, 산책로 등	도서관, 운동장, 전통마당, 산책로 등
Character-istics	광역생활권 중심의 자연형 근린공원으로서 분당의 랜드마크 크적 역할 담당	지역 및 근린생활권 중심의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일산의 공원 녹지체계상 중심적 역할 담당	산본의 중심공원으로 운동, 휴게, 편의 등의 종합적 성격

Source : korea land corporation(1997a; 1997b),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1997).

시들은 모두 주택난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막대한 면적을 단기간내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신도시의 개별적 특성의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일한 개발방식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써, 결과적으로 각 도시의 개체성 소실 및 지역적 정체성 상실이 우려되는 공통점이 있다.

조사대상 공원인 세 지역의 중앙공원은 모두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 근린공원보다 비교적 면적이 넓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여가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일산의 경우 중앙공원보다 호수공원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대표적 공원이지만 ‘호수’라는 특정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조사대상지와의 성격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각 조사대상지의 개요는 Table 1과 같다.

4. 표본 및 설문조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은 분당, 일산, 산본 신도시 거주자로서 조사 당일 자기 거주지역의 해당 공원 이용자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조사원은 설문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 후 투입하였으며, 1회에 1인의 응답자만을 담당토록 하므로써 응답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설문지 작성의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본조사 이전에 각 조사 대상지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pilot test)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성과 응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였고, 그 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1998년 9월 18일~27일에 걸쳐 행해졌으며, 요일에 따른 공원 이용층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토·일요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조사된 표본수는 총 374매이나 추후 검사를 통해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응답경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된 표본을 제외한 후의 유효표본은 총 353매로서 분당 150매, 일산 113매, 산본 90매이다.

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이 53.8%(190명), 여성이 46.2%(163명)이다. 연령은 30대가 38.2%(135명)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가 35.1%(124명), 40대가 16.1%(57명), 50대가 5.7%(20명), 60대 이상이 4.8%(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신도시 거주기간은 2년~4년이 39.7%(140명)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인 30.6%(108명), 4년~6년 미만이 21.0%(74명), 6년 이상이 8.8%(31명)로서 대부분 4년 미만의 거주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신도시의 구성원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설문지 구성 및 분석

설문지는 공원이용실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등 평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기입식(self-adminstration) 설문지로 측정 설문은 모두 폐쇄형(close-ended) 질문을 사용하였다.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및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 평가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항목은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의 평가는 공원에서 느껴지는 종합적인 심상으로서 앞에서 추출된 10개의 세부 항목을 제시한 후, 각 항목별로 해당 공원에 대해 가지는 인상의 정도를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의 5점 척도에 의해 표시하도록 하였다.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에 대한 질문은 직접적으로 5점 척도(매우 많다-전혀 없다,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에 의해 응답토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 자료의 분석은 SPSS(ver. 7.5: SPSS Inc., 1997)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10개의 지역적 정체성 평가 항목은 본 분석에 앞서 이들 항목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이계수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항목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항목은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개별 항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산평정하여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중요 변수들간의 상관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변수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 해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준화회귀계수를 산출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행된 경로분석 결과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공변량분해(covariation analysis)를 통해 직접적 인과효과(direct causal effect) 외에 간접적 인과효과(indirect causal effect), 비인과효과(non-causal effect) 등을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지역적 정체성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토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평가에 사용된 10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항목에 대한 변이계수의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분석은 측정된 변수가 분석에 사용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비율로서 낮을수록 좋은 측정치이다. Table 2에서 10개 측정항목의 변이계수는 전체적으로 0.27~0.42의 범위내에 있는 적절한 측정치로서 각각의 항목들을 분석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유성(uniquness)' 항목은 0.53으로 다소 높았다.

Table 2. Coefficient of variance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dentity

Identity Items	C.V.	Items-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s Deleted
Culture	0.37	0.50	0.77
Uniqueness	0.53	0.40	0.79
Symbolic	0.35	0.51	0.77
Historic Nature	0.42	0.52	0.77
Homogeneity	0.29	0.44	0.78
Harmony	0.27	0.49	0.77
Difference	0.36	0.49	0.77
Public Benefit	0.29	0.42	0.78
Nativeness	0.33	0.48	0.77
Traditionality	0.38	0.49	0.77
Alpha(Total)	-	-	0.80

신뢰도 분석의 결과 검사총점간 상관(items-total correlation)은 모두 일반적 기준인 0.3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 항목의 신뢰도 계수(reliability

coefficient)는 탐색적 연구의 일반적 기준인 0.7을 상회하는 $\alpha=0.80$ 으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변이계수가 다소 높은 '고유성' 항목을 제거시 신뢰도(alpha if items deletes)의 상승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검사 총점간 상관이 일반적 기준을 상회하므로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체성을 설명하는 10개 항목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확정된 10개 측정항목은 합산평정하여 도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으로 적용하였다.

2.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 평가

Table 3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의해 측정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항목의 기술통계 내용이다(5점: 해당 항목의 인상의 정도가 '매우 많다'). 분석 결과 분당과 일산의 경우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산본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분당과 일산의 경우 '상징성', '동질성', '조화성', '차별성' 및 '공익성'의 정체성 이미지에서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인상을 받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산본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하의 평가로 지역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성', '상징성', '역사성', '향토성' 및 '전통성'의 구현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analysis of regional identity in urban park

Identity Items	Bundang	Ilisan	Sanbon	Total
Culture	2.9	2.6	2.5	2.7
Uniqueness	3.0	2.6	2.1	2.6
Symbolic	3.0	3.2	2.3	2.8
Historic Nature	2.7	2.3	1.9	2.3
Homogeneity	3.2	3.0	2.8	3.0
Harmony	3.5	3.8	3.0	3.4
Difference	3.5	3.3	2.6	3.1
Public benefit	3.6	3.9	3.0	3.5
Nativeness	3.0	2.7	2.4	2.7
Traditionality	2.7	2.5	2.0	2.4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조화성' 과 '공익성' 에서 긍정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역사성' 과 '전통성' 의 구현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구현을 위하여는 공원조성에 있어서 지역의 '역사성' 과 '전통성'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4에서 해당 신도시의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만족도는 분당(mean=3.9)과 일산(mean=3.6)의 경우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본(mean=3.0)의 경우는 보통 수준의 만족도로 평가하여 분당과 일산보다 다소 낮은 공원만족도를 나타냈다.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지역적 소속감에 대한 평가도 분당(mean=3.6)과 일산(mean=3.5)보다 산본(mean=3.2)의 경우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 주거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다소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일산(mean=3.7)과 산본(mean=3.6)보다 분당 신도시의 주거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mean=3.9)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analysis of park satisfaction, belongingness to region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Sampling Areas	Bundang	Ilsan	Sanbon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ark Satisfaction	3.9(0.9)	3.8(0.9)	3.0(0.9)	3.7(1.0)
Belongingness to Region	3.6(1.0)	3.5(1.0)	3.2(1.0)	3.5(1.0)
Residential Satisfaction	4.0(0.9)	3.7(0.9)	3.6(0.8)	3.8(0.9)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분당 신도시의 경우가 일산과 산본 신도시 보다는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구현, 공원만족도 및 거주 지역에 대한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산본 신도시의 경우는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구현도 미흡하고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가 가장 낮아서 분당, 일산 신도시와 비교할 때 다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는 신도시로 평가되었다.

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이들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5는 그 결과로 이들 구성적 변수들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r)는 0.34~0.55의 범위로 4개의 변수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r=.53$),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r=.55$)간에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4개의 구성적 변수간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 변수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변수(intermediate variable)를 통하여 전달되는 간접효과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등의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constructed variables

Variables	Park Satisfaction	Belongingness to Community	Residential Satisfaction
Park Satisfaction	-		
Belongingness to Region	0.42	-	
Residential Satisfaction	0.45	0.55	-
Identity	0.53	0.35	0.41

* $P < 0.01$

4. 인과모형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원만족도와 주거만족도와의 개별적인 관련성은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신원득과 최남희, 1996; 임경수와 김제익,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개별적인 인과관계의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와의 종합적

인과관계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공원만족도 및 지역적 소속감을 매개변수로, 주거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표준화회귀계수(beta)를 경로계수로 사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Figure 2는 공원에서의 지역적 정체성이 공원만족도 및 지역적 소속감의 두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여 주거만족도를 설명하는 인과구조를 설정하고, 경로계수들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경로계수는 직접효과의 지표이지만 경로모형내의 한 선행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효과만으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없으므로 공변량의 세부적인 분해가 요구된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적 소속감, 지역적 정체성과 주거만족도의 공변량은 모두 인과적 효과임을 알 수 있으며, 두 변수 사이에 비인과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공원만족도와 지역적 소속감, 공원만족도와 주거만족도,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의 관계에서는 공변량이 인과효과와 비인과효과로 분해되

어 두 변수간 공변량의 21~29%가 비인과적 의사관계(spurious relationship)에 의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지역적 소속감의 경우, 이 변수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2이며, 두 변수 사이의 나머지 공변량(0.13)은 두 변수가 외생변수인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원만족도를 공유하는 데 기인하는 의사상관(spurious correlation)으로 판명된다.

그러므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은 미약하나, 공원만족도 혹은 지역적 소속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생변수인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과 종속변수인 주거만족도와의 경로계수(0.12)만을 단순히 고려하면, 지역적 정체성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효과는 그 계수가 직접효과인 0.17보다 더 큰 0.24에 이르러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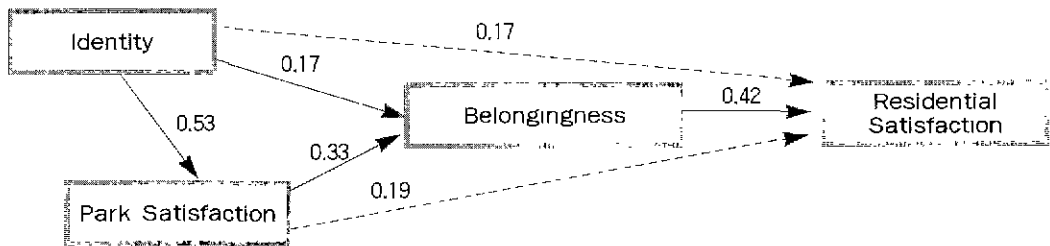


Figure 2. Results of causal model

Table 6. Covariation analysis in causal model

	Park Identity	Belongingness Identity	Residential Identity	Belongingness Park	Residential Park	Residential Belongingness
covariation	0.53	0.34	0.41	0.42	0.45	0.55
causal effect	0.53	0.34	0.41	0.33	0.32	0.42
direct effect	0.53	0.17	0.17	0.33	0.19	0.42
indirect effect	-	0.17	0.24	-	0.13	-
non-causal effect	-	-	-	0.09	0.13	0.13

Note . Variable abbreviations are regional identity, park satisfaction, belongingness to region, residential satisfaction,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도시공원 조성이 유사한 기호적 접근체계와 보편적인 가치기준 아래 점차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배경으로부터, 도시공원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적 정체성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인식 아래 진행되었다. 분당, 일산, 산본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를 평가하고 정체성 개념 적용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원내의 물리적 요소를 평가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공원에 대한 종합적 심상으로서 정체성이라는 이미지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조화성' 과 '공익성' 에서는 긍정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역사성' 과 '전통성' 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역사성' 과 '전통성'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사례대상지로 보면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 평가에서 분당과 일산의 경우가 산본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산본 신도시가 다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공원만족도($r=.53$), 지역적 소속감($r=.34$) 및 주거만족도($r=.41$)와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적 소속감과 주거만족도($r=.55$)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직접적으로 지역적 소속감 및 주거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은 미약하나, 공원만족도 혹은 지역적 소속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주거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원의 정체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7인 반면, 간접효과의 경우 직접효과보다 더 큰 0.2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시공원의 지역적 정체성은 공원이용의 종합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공원만족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포괄적 반응인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에 대한 평가는 공원의 속성인 시설요소 혹은 동기 충족의 심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원이란 실체에 대한 종합적 심상으로서 지역의 정체성 구현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원의 지역적 정체성 구현의 문제는 도시공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선정된 10개의 정체성 측정 항목 선정의 논리성 문제와 제시된 인과모형이 일부 경로계수의 수치가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포화모형(just-identified model)의 형태가 되어 간명함이 없고,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이론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에 구현된 정체성과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 등과의 종합적인 인과관계의 해석이라는 탐색적 연구로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의 후속연구는 공원의 속성으로서 물리적 요소와 공원 이용의 동기충족이라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모형의 설정과 함께, 일방향(unidirectional)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양방향 인과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본 연구에서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공원만족도, 지역적 소속감, 주거만족도의 종합적 반응의 평가를 잠재변수화하여 측정할 수 있고,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과제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1996) 경기도 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경기도 보고서.
2. 김동찬(1994) 도시공원 설계에 나타난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조경논총, 경희대학교 조경계획연구소, 6(1): 81-88.
3. 김동찬, 심윤경(1996), 시각적 선호도와 문화적 아이덴티티 인지도의 상관성 분석. 한국경원학회지 14(1):55-65.
4. 김봉원(1995) 수도권 근교농촌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평가 모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영대(1996) 지방도시 중심가로의 정체성 회복방안. 한국조경학회지 24(1):114-116.
6. 김유일(1988) 주거만족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한도(1994) 도시공원 이미지와 이용의 관계성에 관한 연

- 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김한배(1993) 경주시 경관정체성 증진방안의 시론적 연구. 사찰조경연구2.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9. 김한배(1997)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서울: 태림문화사.
 10. 대한주택공사(1992) 대한 주택공사 30년사. 서울: 대한주택공사.
 11. 대한주택공사(1997) 산본 신도시 개발사. 서울: 대한주택공사. 570-576.
 12. 동아시아대백과사전(1992), 서울: 동아출판사.
 13. 신원득, 최남화(1996) 신도시 기능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14. 심윤경(1996) 도시공원 시설물에 나타난 문화적 아이덴티티 표현방식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양승우, 백인길(1997)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국토계획 32(6):29-32.
 16. 유병립, 황기원(1992) 도시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보고서.
 17. 이경훈, 김진권(1993)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아이덴티티 성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7):61-69.
 18. 이규목(1980) 환경지각과 장소성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지 24(90):5-6.
 19. 이규목(1988) 도시와 상징. 서울: 일지사.
 20. 이석환(1988) 도시 가로 의 상징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이석환, 황기원(1997)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5) 169-184.
 22. 이현미(1991) 주거환경의 아이덴티티 요소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임경수, 김재익(1998) 수도권 신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8-25
 24. 임승빈(1996) 도시경관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경학회지 24(1):117-120.
 25. 조세환, 오취영(1993)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분석. 국토계획 28(4):162-180.
 26. 주중원, 하재명(1986) 자아의 표현으로서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1(1).
 27. 주중원, 하재명(1988) 환경적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3(3):19-30.
 28. 하재명(1989) 물리적 환경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하재명, 박찬석(1992) 주거지의 환경적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1):25-35.
 30. 한국토지공사(1997a) 분당 신도시 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284-288.
 31. 한국토지공사(1997b) 일산 신도시 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581-699.
 32. 황기원(1996) 도시의 정체성과 쾌적성. 한국조경학회지 24(1):110-113
 33. Erikson, Erik H.(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34. Gibberd, Frederick.(1967) *Town Design*. New York: Proger.
 35. Goldsteen, Joel B., Elliott, Cecil.(1993) *Designing America: creating urban identity*. Van Nostand Reinhold. pp. 1-31.
 36. Hough, Michael.(1990) *Out of Place*. Yale University Press. pp.34-58.
 37. Hull, R Bruce., and Lam, Mark., and Vigo, Gabriela.(1994) Place identity: symbols of self in the urban fabric.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vol 29. 109-120.
 38. Kim, Sung-Ho.(1997) *Modeling Resident Satisfaction Comparison of the Franciscato and Fishbein-Ajzen Model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SA; Urbana-Champaign.
 39. Lynch, K.(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it Press.
 40. Lynch K (1984) *Site Planning*. Cambridge: MIT Press. p 225
 41. Proshansky, H. M.(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vol 3: 57-83.
 42. Proshansky, H. M., and Ittelson, W. H., and Rivlin L. G.(1976) *Environmental Psychology: People and Their Physical Setting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43.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44. Strauss, A.(1976) *Image of the American cit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45. Walmsly, D. J.(1988) *Urban Living*. New York: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